

첨부파일 2. 소비자 주의사항

□ 에어컨 구입 시 설치 및 설치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.

- 설치비 등 추가비용 발생 여부,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, 이전 설치비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.
- 특히,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으로 구입 시 설치비 관련 정보가 명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설치비 견적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.
- ※ 제조사 직영점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 설치는 별도의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하게 되어 설치노하우 부족, 추가비용 부담 등 상호 계약조건 불일치 발생 가능

□ 설치 후 즉시 가동하여 냉매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, 주기적으로 자가점검을 실시한다.

- 에어컨 설치 후 바로 가동하지 않고 몇 개월 혹은 해를 넘겨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. 이 경우 제품 자체의 문제인지 설치상의 문제인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에어컨 설치 후에는 즉시 시험 가동해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.
- 하지만 미세한 냉매가스 누출은 설치 직후 에어컨을 가동하더라도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자가점검이 필요하다. 약 3~4개월에 한번씩 20분 정도 에어컨을 가동하여 냉매가스 누출 여부, 실외기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.

□ 설치 시 설치하자에 대한 보증 여부를 확인한다.

- 현재 에어컨 설치 관련 공인 자격증은 없으며, 일부 제조회사는 별도의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. 제조회사가 직접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도 제조회사가 보증하기 때문에 사후보상이 용이하다.
-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에어컨의 경우 제조회사가 직접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에어컨 판매자가 별도로 계약한 업체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. 이 경우 하자 발생 시 보상 책임을 서로 미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도록 한다.

※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,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'1372소비자상담센터(국번없이 1372, www.ccn.go.kr)' 또는 '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(모바일앱, www.consumer.go.kr)'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.